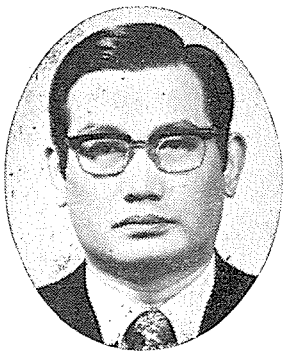


國民勳章 冬栢章 褒賞者 프로필

基礎醫學研究에 寄與 可移植性 “尹腺癌” “尹肉腫” 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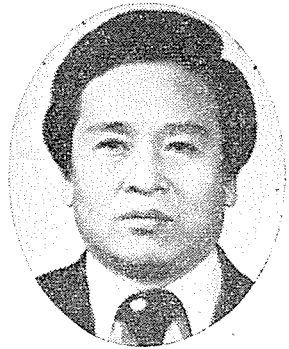
尹 鐸 求
韓國原子力研究所
癌病理學研究室長

국민훈장 冬栢章을 褒賞받은 尹鐸求(44歲)博士는 19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原子力院 放射線醫學研究所에 入所 今日에 이르기까지 初志一貫 癌病理學研究에 종사하여은 전형적인 의과 학자로서 抗癌酵素를 動物癌에서 증명하여 國內의 의학계에 발표하게되자 國內의 젊은 의학도들의 研究熱을 드높였음은 물론 韓國에서도 기초과학연구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癌研究에 있어서 牛脾「리보누크리에이스」의 抗癌作用을 多年間의 動物實驗 또는 人體實驗을 통하여 纖維性肉腫과 脂肪肉腫에서 有効함을 究明하여 國內의 암학계에 발표함으로서 우리나라 암치료연구분야에서 선구적역활을 수행하였다.

특히 基礎醫學研究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近交系 및 非近交 實驗動物 「마우스, 랫트, 햄스터, 커니픽」 10種을 導入하여 心血을 기울여 우리나라에서의 土着化를 이룩하는 한편 癌研究界에서 극히 稀貴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自然發生 嚙腫液 腺腺癌과 脂肪肉腫을 各各 발견하여 繼代移植하는데 성공하여 新種可移植性 尹腺癌 可移植性 尹肉腫 2種을開發함으로서 腺癌과 肉腫의 發生機轉研究는 물론 암의 각종 치료법연구에 긴요하게 이용할 수있게 함으로서 癌研究分野에 지대한 功獻을 하였다.

에탐부틀合成開發 國産化 정밀有機化學發展에 기여



蔡 永 福
韓國科學技術研究所
有機化學 研究室長

국민훈장 冬栢章 褒賞者 蔡永福(40歲)博士는 1959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西獨의 뮌헨대학에 留學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대학에서 노벨생리의학상 受賞者 Sevro Ochoa교수의 蛋白質 合成성 메카니즘에 관한 共同研究로 이분야 연구에 공헌한바있다

1969年 귀국 今日까지 韓國科學技術研究所 精密有機化學과 관련되는 染料·醫藥品原料의 國內생산을 위한 연구 및 寫眞感光材料의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曠精의 합성에 관한 연구등을 통하여 國內 精密有機化學 工業의 土着化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거 6년간에 이룬 에탐부틀의 새로운 合成法에 관한 연구. 黑白필름의 國産化, 여러種의 抗生劑의 國産化등의 産業化 연구는 25種에 달하며 이분야 公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에탐부틀의 새로운 合成法에 관한 研究 및 이의 工場化를 1970년에 착수 1974년에 완료하였다. 정부는 2차항결핵제로 쓰이는 에탐부틀의 國産化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며 年間 約 500만弗의 收入代替效果를 보게되었다.